

## 2016 애브비 소식

애브비 소식 > 2016 애브비 소식 > 애브비 소식

### 애브비 소식

#### PRESS RELEASE

환자들을 위해 작지만 큰 희망의 걸음 한국애브비,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위한 '애브비 워크 2016' 캠페인 펼쳐

September 19, 2016

- 한국애브비 전 직원 걷기 캠페인 실시 ... 달성 거리에 따라 기부금 매칭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 전달
- 사내 직원 커미티 중 하나인 '이노베이션 앰배서더' 커미티 주도로, 직원 건강과 업무 혁신 기대



2016년 9월 19일, 대한민국 서울 - 한국애브비(대표이사 유희기)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을 돕기 위해 11월 30일 까지 '애브비 워크 (AbbVie Walk) 2016' 전 직원 걷기 캠페인을 펼친다. 약 3개월 동안 직원들의 걸음을 통해 쌓인 포인트에 따라 회사에서 매칭한 기부금을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을 위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빅 워크(Big Walk)' 모바일 앱 내 '한국 애브비 모음통'에서 관심있는 직원 누구나 참여해 3명 이상 자율적으로 팀을 이뤄 걷기에 동참하고 있으며, 현재 직원의 절반이 참여했다. 직원들이 걸은 총 거리가 10,000km를 달성할 경우 최대 500만원이 희귀난치성 환우들을 위해 기부된다. 매월 첫 월요일 팀 순위 발표를 통해 해당 팀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많이 걸은 1등 팀에게는 소정의 시상금을 할 예정이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걷는 의미와 재미를 느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한국애브비 이노베이션 커미티에서는 다채로운 정보들을 함께 소개한다. 사무실에서 걸어가기 좋은 맛집 소개에서부터 회사 주변 피트니스 센터들의 비용, 장점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회사 내 계단을 더 즐겁게 오를 수 있게 환경미화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애브비 '이노베이션 앰배서더' 커미티의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애브비는 직원들이 사측과함께 만들어 가는 기업문화를 이끄기 위해 4개의 직원 커미티를 운영 중이다. 근무 환경, 일하는 방식, 환자를 위한 솔루션을 찾는 혁신 프로세스와 행동까지 직원들에게 일깨우는 'I-AM(Innovation Ambassador)'를 포함해,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기업 문화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실행하기도 하는 'I'm 通通(통통)', 직원들의 따뜻한 나눔 의지를 모은 직원자원봉사단 '따손', 직원들의 자기 계발과 성장 발전에 대해 직원들이 고민하고 아이디어와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와 솔루션을 함께 만들어 가는 '러닝 커미티'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애브비 유희기 대표이사는 "우리의 작은 걸음들을 모아 희귀난치성질환 환우들을 응원하며, 운동을 통한 나눔으로 직원들이 보람과 행복을 얻고, 업무에서는 혁신적인 접근과 아이디어를 활성화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애브비에 대하여

애브비는 연구 기반의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으로 2013년 애보트가 두 개의 기업으로 분사되면서 설립됐습니다.당사의 미션은 전문성, 혁신적인 직원들, 혁신을 향한 독창적인 접근법을 통해 세계적으로 가장 어렵고 심각한 질환들을 치료하는 혁신적인 치료제를 개발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애브비는 자회사인 파마사이클릭스를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2만 8천 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170여개 국가에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당사와 직원, 파트너, 약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www.abbvie.com](http://www.abbvie.com)을 방문해 주십시오. 트위터 계정@abbvienews 를 팔로우 하시거나 페이스북과 링크드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유희기)는 서울 본사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사무소에 약 100명의 직원들을 두고 있습니다.한국애브비에 대한 상세 정보는 [www.abbvie.co.kr](http://www.abbvie.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